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91호 [부제 제25700호] 주제 106 (2017)년 7월 10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를 안아온 위대한 조선로동당에 드리는 영광의 노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성공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 성대히 진행

위대한 영웅의 기치높이 우리 나라를 존엄높은 주체의 핵강국, 로켓강국으로 우뚝 올려세워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에 드리는 천만심장의 찬가가 뜻깊은 승리의 7월의 하늘가에 끝없이 울려 퍼지는 속에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성공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이 9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으로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필승불패성을 온 누리에 떨치며 자력자강의 만리마대군을 다그쳐나가는 승리자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새차재 끓어번지고 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었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감칠의 담력과 배짱, 불같은 애국헌신으로 주체조선의 종말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 주시고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들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녀성예술인들이 향기로운 꽃다발을 드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국방과학부문의 책임일꾼들과 공로있는 과학자들이 관람석에 나왔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후송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 국방과학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교직원,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위력으로 세계가 알수도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영웅신화들을 다발적으로, 번달적으로 창조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파시한 가루 《우리를 부러워하라》, 《보란듯이》, 무용 《달려가자 미미로》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희세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끝바르나아가는 위대한 당, 주체조선의 무궁창창한 대일에 대한 확신을 안겨준 공연은 종국 《김정은장군께 영광을》로 끝났다.

장중하면서도 격동적인 우리 시의 판현악과 경음악, 합창과 다양한 성악종목들, 무용의 배합으로 기적의 만리마대군 세계를 앞서나가는 우리 조국의 눈부신 현실, 강용한 인민의 불굴의 기개를 보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결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리쳐올리는 《만세!》의 우렁찬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었다.

전체 관람자들은 매두산대국의 존엄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모반악단, 청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황제산예술단의 예술인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창조기풍으로 민족사적인 대승리와 특대사변을 다제단으로 이룩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처럼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찬가, 사회주의전진가들을 새롭고 특색있게 형성하여 뜻깊은 기념무대를 펼쳐놓았다.

서곡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남성합창 《영광을 드려라 위대한 우리 당에》, 기악과 노래 《빛나는 조국》, 관현악과 남성합창 《총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 녀성중창 《사회주의전진가》, 경음악 《공화국로켓병행진곡》, 남성독창과 합창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녀성독창과 방창 《당을 노래하노라》, 타프중 《승리의 축배》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핵무력건설대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어 우리 공화국을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켓보유국으로 되게 하여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몸소 전략탄도로켓의 총성제가, 제1선전투원이 되시어 깊은 밤, 이룬세력에도 아슬아슬한 시험발사현장들을 찾고왔으며 세형의 로켓개발의 험로역경을 한치한치 열어나가신 위대한 선군령장의 불멸불후의 헌신과 로고를 가슴깊이 새겨보았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을 전투지휘하시며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최후승리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엄한 영상이 무대배경에 모시질 때마다 장내에는 열광적인 박수가 리쳐올랐다.

위대한 최고령도자의 믿음과 정을 운명의 퍼즐기로, 생명선으로 베풀어 새기고 시련의 천만고비를 완강하게 돌파하며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판철한 국방과학전사들의 위훈을 담은 녀성중창 《조국과 나》, 경음악 《단숨에》, 녀성중창 《화성포의 노래》 등도 무대에 올랐다.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만리마대시의 벽산 줄길이 맥박치고 사회주의조선의 불가항력적위력을 힘있게 구가하는 공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조되었다.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리쳐올린 승전포성에 화답하여 자력자강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판설을 위한 자력자강의 만리마대군을 향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끊임없는 대비작, 대혁신을 일으켜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성공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은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조선의 자주적존엄과 불패의 국력을 만방에 떨친 그 기세, 그 기력으로 수령의 유총판철전, 당정책위원회의 불길들을 더욱 세차게 일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본사정치정보단



위대한 수령님들의 핵강국건설념원을 빛나게 실현한



고동치는 심장의 격정으로 우리 편을 들었다. 만만치 않은 핵기술의 격조있는 향연이 펼쳐진 자리들을 영웅히 아릅답게 후를 하늘아래 세우게 된 이 나라 부모들의 마음을 안고 격정의 용암을 머지않아 쏟아져 내린다는 심정들이 거침없이 쏟아내는 말과 생각을 그대로 담아 조신인민의 힘-대륙간단도 로켓에 대하여, 력륙탄보다 더 강한 이 나라 믿음에 대해 목청껏 전한다.

정론 인민의 경의

가뭇과 눈물이 어우러진 전에는 환오의 격과였다. 지금처럼 이같이 수심만 군중이 열도에 떨쳐나와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축하의 꽃발들 펼쳐져 그 빛이 있었는가.

은 행성이 주제조선의 로켓총격으로 새 차가 끊이던지던 지난 7일 대륙간단도 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인민의 강한 영웅들이 개인장관만큼 수도 평양에 도착하였다.

순간 화성이 떠날듯 여기저기서 사दै처럼 퍼져나오는 시량들. 그속에 붙여 우리가 환영의 꽃다발안고 연도로 달려나갔다.

평양체육관광장으로부터 만수대거리, 대학거리 등에 이르는 연도에 펼쳐진 화려함과 붉은기운과 불은, 꽃다발들을 흔들던 그 무수한 모습들이 우리 가슴을 채 그리도록 울렸던가.

복받치는 환희에 웃고 웃구치는 격정에 울고...

이것이 환영의 거리에서 우리가 본 인민의 모습이었다. 얼마나 감격이 극적이었는지,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강에 하는 최고명도 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해무력을 증주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며 나라의 강성변명을 위한 확고한 담보입니다.》

과연 저사람들이 아닌가.

2017년 7월 4일, 이날 특별대보도가 있게 된다는 소식에 전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멈추고도 흐르는 눈빛으로 그 시각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회의실도, 마당도 그렇게 속속 모여든 속에 피어날처럼 퍼져나오는 소식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대륙간단도 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을 알리는 소식이었다. ...만세, 만만세!

그날의 보도는 짧았다. 그러나 5천년의 날과 달의 넘치는 응축

되어있었고 또 하나의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낸 역사의 대풍이 있었다.

그날밤엔 온 나라 인민들이 잠들지 못했다. 이 경사로운 날에 축하를 들지 않으면 언제 들었느냐의 사람들이 기쁨을 나눌 때 모란봉구역 전승2동의 어느 한 아파트마당에서 사는 사람들이 악수나 안수 떨쳐나와 노래 《선군승리 열두달》, 《영애야》를 부르며 어깨를 맞대며 경축의 환율을 즐겼다.

아마도 환영의 이 연도에 그들의 마음도 달려오리라.

집벽에 걸어놓은 달력장의 7월 4일에 명칭날처럼 빨간색으로 등재된 그대 그려놓았다는 나이던 소년도, 7월 4일 평양산전에서 태어난 수십명의 아기들의 어머니들, 누구에게 뒤질새라 자식의 이름을 《화성》으로 지었다는 대성구역 미신2동의 여성과 통강군 읍에 사는 류류영애군인녀성의 마음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국방과학전사들을 떼운 배스텔렐은 지나갔어도 총처럼 꽃다발을 내리 흘릴 모르는 인민들, 그들이 서로 격정속에 떠놓는 목소리들이 그대로 우리의 취재수첩에 옮겨졌다.

《연재가 《로동신문》에서 본 대령 양말이 그 곁을 뚫어내려 미국을 축하해버렸다는 누군가의 반항이 떠오르지만, 이제야 눈물이 어떻도 없지. 단주만 누르던 순간에 우리의 《화성-14》형이 쏘고 날아가는 활의 아성을 제가루로 만들랜데, 정 말 흥재하던 말이요.》

《미국놈들이 벌써 장승국이 훔쳤지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인민이 운명이 주어준 우리의 《선봉보따리》를 달아냈던 말이요.》

《난 요즘 왜서인지 자주 하늘만 쳐다보게 되는구나. 우리의 대륙간단도 로켓이 날아오른 그 하늘이 얼마나 높아보이던지. 내가 만약 시인이 라면 이렇게 노래하고싶소. 하늘이 그 얼마나 높은가고 나에게 묻지를 마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인민이 된 우리들의 총천원 궁지이자 하늘의 높이와비라고 말이요.》

《화성-14》형만 어제 하늘에 올랐것소. 나도 꼭 우주에 올라 지구를 돌아보는것만 같소.》

...하늘끝에 닿은 인민의 이 자부, 이 영광,

바로 그것은 세상밖에 밀려났던 한 세계의 불우한 민족으로부터 세상에서 제일 힘있는 민족으로 운명 전환의 변화무쌍을 올라선 강국의 공민 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의 총출발이다.

그 연제였던가, 남들이 하늘에 비행기를 띄울 때 하늘소를 타고다니는 수위에 없었던 그 세월은, 남들이 땅 크편을 빌릴 때 얼마 인되는 화승총아를 부르는 어찌를 떠돌며 경축의 환율을 즐겼다.

그렇게 힘이 약해 나라를 빼앗겼고 그렇게 일제놈들의 군도에 목이 잘리우는 민족수난의 비극을 감수해왔던 불쌍한 때의 민족, 지난 세기 50년대의 가혹한 전쟁의 3년간, 과연 그 나날 원자탄을 휘둘러대는 미국놈들때문에 생겨난 고통을 《화성》으로 지었다는 대성구역 미제승냥이들은 가슴시격을 부여웠으니 그대의 민중의 지를온 얼마나 민족의 괴물 쟁쟁하게 됐던가.

《그것은 마치 두말달린 재미를 기용소사하는 것 같았다. 그런 때에는 유산만이 리상적이었음지.》

두말달린 재미며.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이런 어민의 무리들은 오직 정의의 힘으로만 다스리고 징벌할수 있기에 우리 조국은 미제가 아니라 무수한 생명과 꽃들과 나무를 쓰머뜨린 그 헤아릴수 없는 악마의 흑안들이 나날이 웃으며 지어낸 정발의 흑안들을 미국놈에 퍼붓는 심정으로 국방력의 파편을 굳건히 다져온것 아니던가.

그 길이 어찌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걸어도 길이였겠는가. 그것은 인민의 길이였다.

미국놈들때문에 전쟁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허리띠를 조이며 공장을 지켜냈던 그 사인이 이 나라 그 어느 인민의 가슴엔 맺혀있지 않다.

지금도 귀전에 평행한 최선의 한 어머니의 목소리-《미국놈이 원수지, 강성이 한키이 몇달인줄 아오? 대략 3 300일이야. 끌어본 사람이면,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이 알수 있소.》

사람들이여, 민족의 크나큰 경사 앞에서 이 가슴에서 사실을 말하는 이 마음을 널리 퍼내하시라.

허리띠!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의 밭

곳에 풀죽박에 담아줄수 없었어도 오직 하나 우리 땅의 선군혁명조선 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제 집 밭가마보다 나라의 최후가마부리 먼저 끊어주고 애국의 마음담아 《너명》호포를 마련한 이 나라 어머니들의 그 모습들이 비껴있다. 정녕 그 허리를 영영 풀게 될, 미제를 총구적발당에도 끌아넣고 《세상에 부림없이라》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거에 우리의 그 나날을 승리사되어 추억하는 것이다.

《그대시어리라.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륙간단도 로켓 《화성-14》형의 대 성공은 장장 수십년세월 세계를 이 어온 반세미대결전에서 우리 인민 3년간, 과연 그 나날 원자탄을 휘둘러대는 미국놈들때문에 생겨난 고통을 《화성》으로 지었다는 대성구역 미제승냥이들은 가슴시격을 부여웠으니 그대의 민중의 지를온 얼마나 민족의 괴물 쟁쟁하게 됐던가.》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륙간단도 로켓 《화성-14》형의 대 성공을 축하하며 축하하는 것은 우리의 인민의 승리로 그 역사적의 의미가 무 각되는 무기는 없다.

오늘의 우리 기쁨이 그도록 끈기 오날을 우리 기쁨이 그대도 이른세로 인도하여주시던 그대도 이른세로, 이번의 대륙간단도 로켓 시험발사를 지도하여주시던 그대도 이른세로, 이번의 대륙간단도 로켓 시험발사를 지도하여주시던 그대도 이른세로... 이만세!

《대륙간단도 로켓의 시험발사를 위한 사업을 지도해주시는 우리 원수님의 모습을 새기고 전 울었습니.》

세상에서 제일 존귀하신분께서 과연 그런 위대한만한 시험발사장에서 그렇게 꼭 계시어 한탄 말았나까,

《우리 인민의 존엄과 기상을 저 하늘끝에 올려 세워주시는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편지를 삼가 올리고싶습니.》

《이것이 어찌 적정으로 말할수 호리라. 대동강구역주민들의 심정 만이랴.》

인민의 경의, 인민의 감사! 그것을 함으로 억으면 위대한 대양을 우리러 드러내는 이 세상 제일 아름다운 꽃다발이 될것이고 그것을 노래로 엮으면 또 한편의 《김정은장군 원수님께 보시고 의향을 풀으소서》로 될것이다.

조선의 로켓, 그것은 단순히 강 위력한 비행제만이 아니다.

인민을 위하는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불덩이, 인민의 용접제이다. 잊을수 없다.

내가 로켓을 사랑하는것은 조국과 인민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이며 음악을 사랑하듯은 우리의 인민들에게 분명하고 흥명한 정서영 향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이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의 위대함.

볼보다 더 뜨거운 그 정정을 안으시고 그이께서 써쳐가신 위대한만한 화선길은 그 엄마였던가.

인민이 아는 길보다 모르는 길이 더 많았다.

인민을 단상에 제우시고 조용히 이어가신 새벽길만도 그 얼마인가.

사람들은 이제 새벽이만 말만 나와도 경애하는 원수님 생각이 눈물부르려 온다.

세계보자. 우리의 지상대시상총 힘을 지도하여주시고 그대도 이른세로 인도하여주시던 그대도 이른세로, 이번의 대륙간단도 로켓 시험발사를 지도하여주시던 그대도 이른세로... 이만세!

《대륙간단도 로켓의 시험발사를 위한 사업을 지도해주시는 우리 원수님의 모습을 새기고 전 울었습니.》

세상에서 제일 존귀하신분께서 과연 그런 위대한만한 시험발사장에서 그렇게 꼭 계시어 한탄 말았나까,

《우리 인민의 존엄과 기상을 저 하늘끝에 올려 세워주시는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편지를 삼가 올리고싶습니.》

《이것이 어찌 적정으로 말할수 호리라. 대동강구역주민들의 심정 만이랴.》

인민의 경의, 인민의 감사! 그것을 함으로 억으면 위대한 대양을 우리러 드러내는 이 세상 제일 아름다운 꽃다발이 될것이고 그것을 노래로 엮으면 또 한편의 《김정은장군 원수님께 보시고 의향을 풀으소서》로 될것이다.

조선의 로켓, 그것은 단순히 강 위력한 비행제만이 아니다.

인민을 위하는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불덩이, 인민의 용접제이다. 잊을수 없다.

내가 로켓을 사랑하는것은 조국과 인민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이며 음악을 사랑하듯은 우리의 인민들에게 분명하고 흥명한 정서영 향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이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의 위대함.

볼보다 더 뜨거운 그 정정을 안으시고 그이께서 써쳐가신 위대한만한 화선길은 그 엄마였던가.

인민이 아는 길보다 모르는 길이 더 많았다.

인민을 단상에 제우시고 조용히 이어가신 새벽길만도 그 얼마인가.

사람들은 이제 새벽이만 말만 나와도 경애하는 원수님 생각이 눈물부르려 온다.

세계보자. 우리의 지상대시상총 힘을 지도하여주시고 그대도 이른세로 인도하여주시던 그대도 이른세로, 이번의 대륙간단도 로켓 시험발사를 지도하여주시던 그대도 이른세로... 이만세!

《대륙간단도 로켓의 시험발사를 위한 사업을 지도해주시는 우리 원수님의 모습을 새기고 전 울었습니.》

세상에서 제일 존귀하신분께서 과연 그런 위대한만한 시험발사장에서 그렇게 꼭 계시어 한탄 말았나까,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강국념원, 애국념원을 꽃피우는 길이기도, 오로지 명도자만을 굳게 믿고사는 인민의 기대를 받드는 길이기도 그이는 피와 땀, 열정 아니 생명까지도 무릅쓰고, 아낌없이 내내서며 주체의 혁명력강화의 전초선에 서계신것이 다. 언제나 승리라는 불변의 궤도를 이어가시며!

《그 연제였던가.》

전문가들도 미처 찾지 못했던 성공의 실마리를 뭍소 찾아주신 그날은, 유해로운 연소가스가 제 가서지지 않은 시험장에 나가서서 열광의 환오를 울리며 달려온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다들 내걸에 앉으라고, 우리 함께 오늘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전사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웃겼은 기념사진을 찍으신 그 순간은.

《정녕 우리 원수님의 인민위한 화선길은 km로는 풀수 없는 끝없는 원신의 길이며 우리 원수님의 꿈과 열정, 고뇌의 일도는 저 하늘의 태양의 빛과 열을 초월하는 무한대의 일도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보시고 무쌍해 오는 나날에 우리 인민이 더룩한 운명의 철학, 믿음의 철학이 있다.》

《그것은 우리 원수님의 길은 곧 과학이 승리하며 원수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천하제일강국의 려명이 밝아온다는것이.》

《하어 이 시각 온 강산에 메아리치는 인민의 심장의 합상은 오직 하나-거기, 끝까지 원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우리 조국의 부국영화와 잇닿은 로 정에서 원자탄도 수소탄도 대륙간단도 로켓도도 귀중하다.》

《그보다 더 소중한 혁명의 계보, 그것만 있으면 천하가 뒤집힌데도 두 련치 않을 우리 혁명의 전파원태병 기는 믿음으로 굳건한 명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이다.》

《명도자는 인민을 위하여 절사대의 맹 앞장에 서계시고 인민은 명도자의 뜻을 받들어 수령명사용위전, 일심단결의 태권군을 하는 이런 나라를 정복할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세계가 부러워하라, 천하제일강국을 모신 위대한 조신인민을. 이 땅에 쓰고 지는 해와 달이며, 온 나라 천만인민이 심장으로 떠치는 영광과 신민의 메아리를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라.》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만만세!》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인민은 하늘땅끝까지 가고가리라!》

《대륙간단도 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국방과학전사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수도 시민들》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국방과학전사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수도 시민들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국방과학전사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수도 시민들



대륙간단도 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국방과학전사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수도 시민들

본사기자 특음

민족사적대공적 조국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으리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본때로 총진군대오의 앞장에서 자랑찬 위훈을

전형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격정의 목소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앞길을 밝혀주고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동진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

에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에서 단번성공을 안아온 국방과학전사들에 온 나라 인민이 축하의 인사를 계속 보내고있다. 특히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진군총돌격전에서 전형단위의 영예를 떨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국방과학전사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승리의 서든 큰 승리를 쟁취할 결의를 다지고있다.

심정을 이렇게 떠놓았다.
 정말 흥쾌하다. 눈앞에 다가 온 최후승리, 우리 인민 모두가 그토록 바라고 허덕여올 조이며 결함없이 앞당겨온 행부의 재일 이 바로 지적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신심이 배태해진다.
 공화국역사를 특기할 대경사, 후대사변을 맞이하고보니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하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억년 드높지 않음 자립경제의 기틀을 마련해주시고 전태미분의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자립적국방공업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인민들이 세상에 부림없이 행복하게 살 그날을 한시라도 더 빨리 앞당겨오기 위해, 오늘날의 이 성공을 위해 깊은 밤, 이른 새벽 가리실없이 국방과학전사들과 조연결은 화선에 언제나 함께 계시며 고열도 시련도 함께 나누시기를 경애하는 원수님을 생각하니 눈금이 찢어미가 젖어든것

을 어쩔수 없었다.
 우리는 굳게 맹세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믿음에 전사의 실천으로 보답한 국방과학전사들처럼 우리 혁명의 중요직책을 지켜온 로동계급 당계 만리마대원군의 앞장에서 전형단위의 영예를 계속 빛내어나가겠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친히 상표의 이름까지 지어주신 《동방산》구두를 더 평범 만들어내는것으로써 혁명의 총장군을 부르고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 나가겠다.

고 전력증진의 불길높이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진군해갈것이며 그 길에서 온 세상이 부림도록 조국의 모든 영광을 만드시 마땅할것이다.
 오석산화강석광산 원석2직장 직장장 김상근은 힘이 솟구쳐 아무리 일해도 성치치 않고 질로 어깨가 들떠버려 휴면에 뛰어들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가슴속도 점점 더 높이 하늘로 치달아오르는 로켓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탄 라마로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머릿속 두어군데 잡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사의 그날 당의 명진로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발돋움은 위대한 조선인민에게 승고한 정의와 감사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는데 사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드리는 최대의 정의와 감사를 받으셔야 할분은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해주시고 평화수호의 만능모범을 마련해주신 우리 원수님이다.

자강력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실장 박용진은 이렇게 말했다.
 만리마속도로 청탄을 통과하며 행진지휘부 미제를 최후멸망의 내리막길로 쓰세차게 몰아가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국방과학기술에 대해 정말 가슴부푼하게 느끼며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명령이라면 그 어떤 예로와 난관도 막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우리 국방과학전사들이 걸어온 피어린 결사전의 자욱자욱에 우리모두의 탐구의 발걸음을 따라배우며 전형단위의 과학자들답게 과학기술결사전의 불길속을 더욱 세차게 지어올려갔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의 성공적인 시험발사 소식에 접하여 온 부포방이 명절 분위기로 물들고있다고 하면서 부포방이 가장 자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우리는 경계하는 만리마시대에 일어날 거대한 민족사적사변에 경이적인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불길로 화답함으로써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조국정사에 길이 빛날 승리의 대위, 영광의 대위로 빛나게 장식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이것이 최후승리를 노여삼아와 원통한 증오를 강요해야 했던 우리 인민이 아니라면, 강력한 군력이 없는 조국과 민족도, 태 개인이 음흉과 가정의 행복도 없다는 피의 교훈을 뼈에 사무치도록 절감했기에 이런 단심 우리 땅을 따라 시련의 천막고비를 웃으며 시련의 길을 찾았을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배가 부셔서 가루가 되고 몸이 열조각 나더라도 많은 일을 하여 이 땅위에 기여 무궁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해야겠다는 결심입니다.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열풍드높이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소성직장 직장장 한문성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지적인 지도밑에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이 접하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우리는 경계하는 만리마시대에 일어날 거대한 민족사적사변에 경이적인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불길로 화답함으로써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조국정사에 길이 빛날 승리의 대위, 영광의 대위로 빛나게 장식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우리는 경계하는 만리마시대에 일어날 거대한 민족사적사변에 경이적인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불길로 화답함으로써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조국정사에 길이 빛날 승리의 대위, 영광의 대위로 빛나게 장식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우리는 경계하는 만리마시대에 일어날 거대한 민족사적사변에 경이적인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불길로 화답함으로써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조국정사에 길이 빛날 승리의 대위, 영광의 대위로 빛나게 장식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우리는 경계하는 만리마시대에 일어날 거대한 민족사적사변에 경이적인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불길로 화답함으로써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조국정사에 길이 빛날 승리의 대위, 영광의 대위로 빛나게 장식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우리는 경계하는 만리마시대에 일어날 거대한 민족사적사변에 경이적인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불길로 화답함으로써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조국정사에 길이 빛날 승리의 대위, 영광의 대위로 빛나게 장식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모든가 서로 열심이고 어깨를 어깨로 겹쳐서 인민을 위한 공적과 자부심을 높여왔다. 잠시 나는 대로 모여앉아 미세의 판카의 대결전에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있다.

우리는 경계하는 만리마시대에 일어날 거대한 민족사적사변에 경이적인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불길로 화답함으로써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조국정사에 길이 빛날 승리의 대위, 영광의 대위로 빛나게 장식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우리는 경계하는 만리마시대에 일어날 거대한 민족사적사변에 경이적인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불길로 화답함으로써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조국정사에 길이 빛날 승리의 대위, 영광의 대위로 빛나게 장식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우리는 경계하는 만리마시대에 일어날 거대한 민족사적사변에 경이적인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불길로 화답함으로써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조국정사에 길이 빛날 승리의 대위, 영광의 대위로 빛나게 장식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우리는 경계하는 만리마시대에 일어날 거대한 민족사적사변에 경이적인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불길로 화답함으로써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조국정사에 길이 빛날 승리의 대위, 영광의 대위로 빛나게 장식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조국방 방방곡곡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 더욱 세차게 타고르다



-김정숙경양계사공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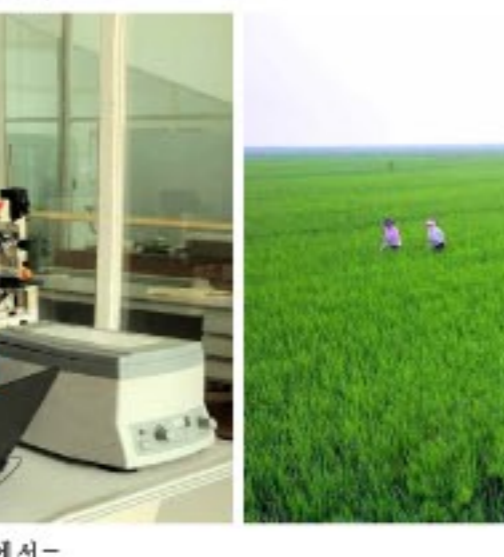
-서평양기관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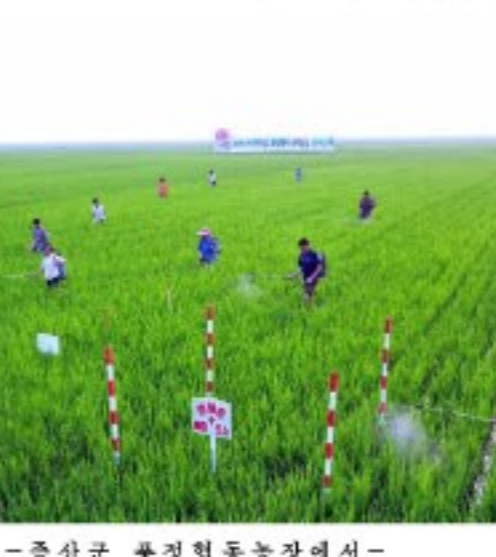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에서-



-증산군 풍정협동농장에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7월의 거리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64년전 전승의 축도가 울려퍼진 이 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성공을 경축하는 조국의 화광속에 뜨거워진 수도의 거리에서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우들을 맞이하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엄어도 주시고 열심아우시었던 사관들, 그이와 형제사관들을 함께 하며 평도자의 권위, 인민의 존엄을 사수한 영웅들 미제를 마승한 전쟁로병들처럼 떠맡아올리는 인민의 격정은 그대로 격랑이 되어 끓어번져 있었다.

우리 원수님의 그 음성들.
 오늘날의 대경사는 이 땅에 전쟁의 참화들 강요하여 삼진강도 불 세히로 만들었던 날강도 미제를 침략의 본거지에서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위력한 진격무기를 가지는것을 일심전투로 갈망해온 우리 인민의 세기적의향을 불러

이 나라 인민들의 하나같은 마음
 류 다 른 기쁨
 꽃매대 앞에서

성공때부터 지금까지 민족의 장한 영웅들은 평양에 올 때마다 꼭 우리 장엄거리를 지났으니까요.
 《그때마다 매년 연도에 나와 환영했지만 오늘날의 기쁨은 그 어디에 비할때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지된, 수조단과 함께 민족의 심정부를 타격할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켓까지 보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공때부터 지금까지 민족의 장한 영웅들은 평양에 올 때마다 꼭 우리 장엄거리를 지났으니까요.
 《그때마다 매년 연도에 나와 환영했지만 오늘날의 기쁨은 그 어디에 비할때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지된, 수조단과 함께 민족의 심정부를 타격할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켓까지 보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7월의 거리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수조단까지 보유한 무진막강의 국력을 가진 우리 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억압과 공격, 강권과 전횡을 뿌리치고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해나가는 책임있는 핵보유국, 주체의 핵강국으로 위용떨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안아보고, 손이파도 한번 잡아보고 밀물처럼 거리로 달려가는 남피로소들앞에서 조국의 강한 아들딸들은 목이 짝 매어와 감격의 눈물로 화답하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엄어도 주시고 열심아우시었던 사관들, 그이와 형제사관들을 함께 하며 평도자의 권위, 인민의 존엄을 사수한 영웅들 미제를 마승한 전쟁로병들처럼 떠맡아올리는 인민의 격정은 그대로 격랑이 되어 끓어번져 있었다.

우리 원수님의 그 음성들.
 오늘날의 대경사는 이 땅에 전쟁의 참화들 강요하여 삼진강도 불 세히로 만들었던 날강도 미제를 침략의 본거지에서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위력한 진격무기를 가지는것을 일심전투로 갈망해온 우리 인민의 세기적의향을 불러

이 나라 인민들의 하나같은 마음
 류 다 른 기쁨
 꽃매대 앞에서

성공때부터 지금까지 민족의 장한 영웅들은 평양에 올 때마다 꼭 우리 장엄거리를 지났으니까요.
 《그때마다 매년 연도에 나와 환영했지만 오늘날의 기쁨은 그 어디에 비할때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지된, 수조단과 함께 민족의 심정부를 타격할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켓까지 보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공때부터 지금까지 민족의 장한 영웅들은 평양에 올 때마다 꼭 우리 장엄거리를 지났으니까요.
 《그때마다 매년 연도에 나와 환영했지만 오늘날의 기쁨은 그 어디에 비할때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지된, 수조단과 함께 민족의 심정부를 타격할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켓까지 보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본사기자 최유일

